한국, 체코 꺾고 8강행 '실낱 희망'

2023 WBC 박세웅 호투 속 김하성 홈런포 7-3 승리
호주·일본에 2연패 충격… 체코가 호주 격파 기대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초반 연패를 당한 한국 야구가 '세미 프로팀' 체코를 물리치고 실낱같은 희망을 이어갔다.

이강철 감독이 이끄는 한국은 12일 일본 도쿄 도쿄돔에서 열린 대회 1라운드 B조 체코와 3차전에서 선발 박세웅의 호투 속에 김하성이 솔로홈런 두 방을 치는 등 타선이 살아나 7-3으로 승리했다.

이로써 초반 호주와 일본에 충격적인 2연패를 당한 뒤 힘겹게 첫 승을 신고한 한국은 8강 진출 가능성을 완전히 꺼트리지는 않았다.

이날 저녁 경기에서 일본이 호주를 꺾고, 13일 낮 경기에서도 체코가 호주를 이긴다는 전제 조건에서 한국이 중국과의 최종전에 승리하면 한국, 호주, 체코 세 나라가 2승 2패로 동률을 이룬다.

이 경우 3개국 사이에 승자승-최소 실점률-최소 자책점률-팀 타율-추첨 순으로 8강 진출 팀을 가리게 된다.

체코전 승리의 주역은 선발투수 박세웅과 '메이저리거' 김하성이었다.

지난 10일 일본전에서 마지막 투수로 등판해 콜드게임패의 수모를 막았던 박세웅은 이날 선발투수로 나서 4⅔이닝을 1안타 무실점으로 막았다. 박세웅은 삼진을 8개나 뽑는 위력적인 모습으로 체코 타선을 봉쇄했다.

앞선 두 경기에서 8타수 무안타로 침묵했던 김하성은 이날 달아나는 솔로홈런 두 방을 터뜨리며 팀 승리를 이끌었다.

1승 2패로 기록하며 13일 중국과 최종전을 남긴 한국은 호주-일본전, 호주-체코전 결과에 따라 '실점률'을 따져 기적처럼 8강에 오를 수 있는 요행수를 기다리는 처지가 됐다. 연합뉴스

12일 일본 도쿄돔에서 열린 2023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 B조 본선 1라운드 한국과 체코의 경기. 한국 선발투수 박세웅이 역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제주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선2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 취임식에서 송승천 회장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최고의 제주 노력"

민선2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송승천회장 취임식

신임 송승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은 지난 10일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 육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 학교체육의 내실화 뒷받침을 통해 '즐거운 체육, 건강한 도민, 최고의 제주'가 될 수 있도록 분골쇄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 회장은 이날 도체육회관 2층 세미나실에서 열린 민선2기이자 제38대 회장 취임식에서 "민선 2기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맡겨주신 제주도민과 체육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도민에게는 건강한 삶과 행복을, 체육인들께는 긍지와 자부심을 높여 나가는 체육회를 만들어 나가면서, 웅비하는 제주체육을 향해 힘껏 달려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 회장은 "스포츠의 시대적 환경, 그리고 가치기준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적극 대응해 종목단체 중심의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제주체육 재정 자립도를 확보하는 등 제주체육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마련해 나가면서 최고의 체육회를 만들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나설 것"이라고 역설했다.

송 회장은 이어 "오늘 민선 2기 체육회 집행부 임원의 출범을 알리는 이사회를 함께 열고 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제주체육인들이 맡겨주신 막중한 책무가 저에게 있음을 잘 알고 있기에 체육회를 이끌어 임원 여러분과 그 의지를 함께해 제주체육을 아끼고 사랑해 주시는 도민 여러분의 뜻을 성실히 받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취임식에 이어 송 회장 주재로 민선 2기 집행부 출범 후 첫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에서는 강경훈 이사(전 제주특별자치도씨름협회장)가 사무처장으로 임명 동의됐으며, 신진성 부회장이 수석부회장으로 임명됐다.

조상윤기자 sycho@ihalla.com

중앙중·제일중·오현중 서전 승리

2023 제주 초중고축구리그 그제 개막
초등부는 LOJE·서귀포 레드 등 첫 승

디펜딩 챔피언 제주중앙중과 정상 탈환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제일중이 나란히 2023 제주 중등축구리그에서 서전을 승리로 장식했다.

제주중앙중은 11일 제주중앙고 구장에서 열린 리그 첫 경기 서귀포중과의 대결에서 김태우와 양지혁의 멀티골과 고준혁의 골에 힘입어 5-0 완승을 거뒀다.

제주제일중은 위너FC와의 경기에서 한혁재의 해트트릭과 허민규의 골로 합쳐 4-0으로 승리하며 2년만에 정상탈환을 위한 시동을 걸었다.

오현중도 첫승의 기쁨을 누렸다. 오현중은 탐라FC와의 경기에서 최선우의 결승골로 1-0으로 이겼다.

초등리그도 막을 올렸다. 이날 이호구장에서 열린 제주시 권역 첫 경기에서 외도초와 화북초가 난타전 끝에 3-3으로 무승부를 기록하며 승점 1씩을 나눠 가졌다. 외도초는 김도원의 멀티골을, 박현이 골을 기록했다. 화북초는 김지구 이태산 고현준이 골맛을 봤다.

이어 벌어진 경기에선 LOJE유나이티드가 서귀포리더스FC 블루를 5-1로 완파하며 첫승을 신고했다. LOJE는 양예준의 멀티골과 진강리, 김민준, 양하준의 릴레이골로 현혜강의 1골을 기록한 서귀포리더스FC 블루를 제압했다. 고민범과 고유찬이 골을 기록한 제주유나이티드는 제주동초를 2-0으로 꺾었다.

서귀포시 효돈B구장에서 막을 올린 서귀포시권역에선 중문초와 서귀포리더스FC 레드가 첫승사냥에 성공했다. 정서진의 멀티골을 기록한 중문초는 서귀포FC를 2-0으로 물리쳤으며, 2명의 해트트릭과 3명의 멀티골 등 모두 8명이 골폭죽을 터트린 서귀포리더스FC 레드가 대정화랑FC에 15-0 대승을 거뒀다. 서귀포초와 프로FC는 2-2로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여준과 이해상, 오수현과 김리훈이 득점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상윤기자

제주Utd 첫승 또 불발

인천에 0-1 패배 10위 추락

제주유나이티드(이하 제주)가 인천 원정에서도 올 시즌 첫승을 거두지 못했다. 시즌 개막 후 3경기 연속 승리와 인연이 닿지 않았다.

제주는 12일 인천축구전용구장에서 열린 K리그1 2023 3라운드 인천유나이티드와의 경기에서 제르소에게 결승골을 내주며 0-1로 패했다.

제주는 이날 패배로 시즌 첫 패배와 함께 승점 2로 순위가 10위로 곤두박질쳤다.

결국 제주는 시즌 첫승의 기회를 오는 18일 홈에서 열리는 서울FC와의 경기로 미뤄야 했다.

특히 이날 전반 15분 출장한 구자철은 K리그 통산 100번째 출전이라는 기록을 세웠지만 팀의 패배로 빛이 바랬다. 조상윤기자

영주고, 대회 3연패 우승기 영구보관

제70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도로사이클

영주고등학교 자전거가 올해도 최강의 전력으로 순항을 본격화했다.

영주고는 지난 10일 전남 강진군에서 끝난 제70회 3·1절 기념 강진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에서 개인종합과 단체종합(위송란 김윤진 현유미 황윤민 박경령)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날 치러진 개인종합에서 박경령은 4분 30초 10의 기록으로 1위로 골인했다. 영주고는 단체종합에서도 13분 33초 05의 기록으로 전남미용고와 경북체고의 추격을 따돌리고 정상에 올랐다. 단체종합은 21년대회 부터 우승하면서 대회 3연패를 달성해 우승기를 영구보관하게 됐다. 조상윤기자

당 축 선
CONGRATULATIONS

서귀포 수산업협동조합장

김 미 자
(삼성여고 5기 동문)

서귀포 농업협동조합장

정 기 철
배우자 : 강동희(삼성여고 7기 동문)

효돈 농업협동조합장

백 성 익
배우자 : 송복자(삼성여고 4기 동문)

서귀포시 산림조합장

오 형 욱
배우자 : 김영미(삼성여고 11기 동문)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더 큰 영광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삼성여자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강 창 숙 외 회원 일동